

그래픽으로 알아보는 '쿠팡의 임직원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2024. 2. 19.



쿠팡은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이 2021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쿠팡케어는
업무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으며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쿠팡케어

물류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

쿠팡케어는 런칭 이후 92억 원을 투자해
참가자 약 8,300여 명의 건강증진을 지원했고,
뇌심혈관위험도 개선율 95%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약 **8,300명**

(2021년~)

쿠팡케어 프로그램
참가자 수



92억원 투자

(2021년~)



95%

뇌심혈관위험도
개선율

(출처: '2023 쿠팡 임팩트 리포트')

또한, 쿠팡은 여성 임직원 및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꾸준히 가꾸어 가고 있는데요.



배송 임직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비율은 4배나 증가했고, 사용 후 복귀
비율도 90% 이상입니다.



배송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비율

4배 증가

(2020년 대비 2022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후 복귀 비율

90% 이상

(2022년)

(출처: '2023 쿠팡 임팩트 리포트')

쿠팡은 지금까지 임직원 복지에 앞장서서 아낌없는
투자과 노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임직원과의
동반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팡 뉴스룸에서 확인해보세요!

coupang newsroom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